

# 지금 국회도서관 열람실엔 미래의 인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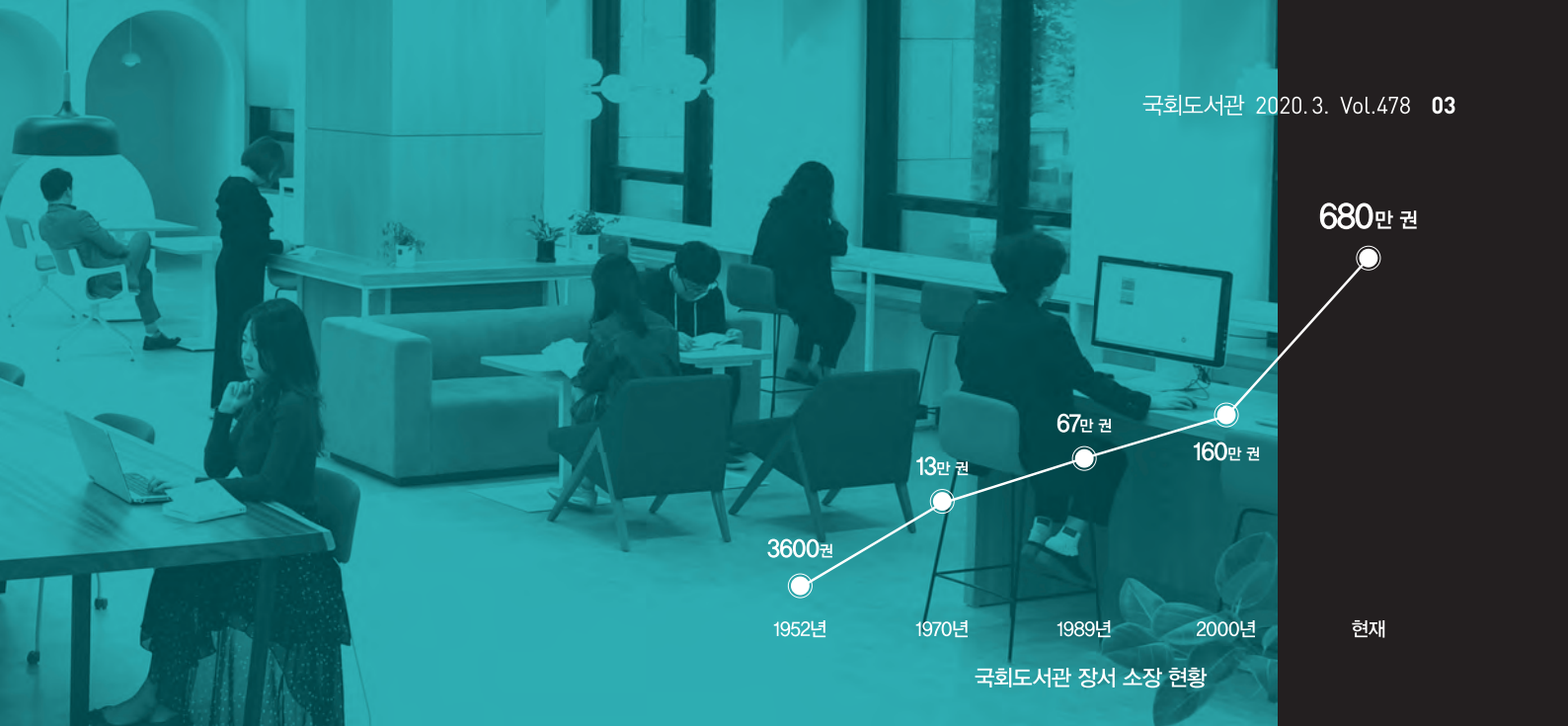
국회도서관장 **현진권**

누구나 청소년 시절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추억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먹고 싶은 게 많았던 그 시절, 가장 성공적인 거짓말은 ‘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책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은 언제나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지폐를 흔쾌히 건네주셨다. 중학교 댄 수학시간에 배운 사인, 코스인, 탄젠트 등의 수학 용어를 책 이름으로 둔갑시켜 책 3권에 해당되는 거금을 성공적으로 ‘뺨땅’한 추억도 있다. 필자 세대의 부모들은 왜 책을 빙자한 자식들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 갔을까? 그 시절 대다수의 부모들은 배우지 못한 한을 가슴 속에 남겨두고 있었다. 모두 다 가난했던 시절이었음에도 배우지 못해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때문에 자식들에겐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배움의 수단인 책을 언제든지 살 수 있게 해줬다.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로 출발했다. 가까스로 건국은 했지만, 얼마 안 돼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았다. 1952년 부산에 설립된 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장서 3600권은 대한민국의 가난했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내 총생산(GDP) 지표도 형편없었다.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70년엔 GDP가 2

조 8000억 원에 이르렀고, 이 같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책도 13만 권으로 늘었다. 이후 1989년 GDP는 166조 원,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책은 67만 권이었다. 2000년에 들어와선 GDP 651조 원, 국회도서관 책은 처음으로 100만 권을 넘어 160만 권이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893조 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액 규모를 자랑하고, 이에 발맞춰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장서도 680만 권이다. 실로 놀라운 경제 발전 속도다.

경제학에선 국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한 이유를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설명한다. 대표적인 요인이 자본과 노동 등 경제투입요소다. 이 밖에도 기술 발전과 혁신 및 제도 등 외적 요소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경제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를 ‘책을 산다는 자식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본다. 이것은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 당시 부모들 또한 국가의 경제 성장 같은 거창한 목표를 위해 살지 않았다. 단지 자식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라 생각했고, 공부는 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을 뿐이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마음이 모여 국가의 경제 발전이 이뤄진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 수준의 강대국이 됐다. 3600권의 장서로 시작한 국회도서관 역시 68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도서관이 됐다. 이뿐인가. 이제 부모 세대의 학벌이 자식들의 학벌에 뒤지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책을 빙자해 용돈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시절에 살고 있지 않다. 국회도서관의 책이 3000여 권 있을 때는 책이 주는 배움이 그야말로 감동이었겠지만, 700만 권에 육박하는 책이 주는 감동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양'에서 '질'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

책은 정보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책에 대한 수요는 책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 법칙이다. 책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0%만큼 책의 가격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저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그야말로 '가난한 천재'들이 국가발전의 소중한 자산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국회도서관이 대표적인 무료 공공도서관이다.

책을 보는 사람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지혜가 될 수 있다. 책을 통해 지혜 차원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제는 흔하게 널려있는 많은 책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책을 통해 공공부문을 혁신하는 지혜를 얻고, 기업이 정신의 지혜를 얻고, 정치를 개혁하는 지혜를 얻는 개인이 나와야 한다. 이제 지혜로운 개인이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와 같은 기업이 정신의 지혜를 가진 개인이 탄생한다면,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정치에서 혁신을 꾀하는 개인이 나오면 국민 단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치르고 있는 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모든 삶은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노력이 국가적 에너지로 집결되기 위해 책을 통한 생각이 필요하고, 사상이 필요하다. 오늘도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열람자 중에서 미래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위대한 기업인이 나오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정치인이 탄생하길 바란다. 과거에 우리의 경제 발전은 부모들의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우리의 미래는 책을 통해 지혜를 깨닫는 소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